‘미래산단 폭탄’ 나주시 재정파탄 위기

재협약 동의안 시의회 본회의 상정조차 못해

이달내 처리 안되면 차압…내일 표결처리 주목

새 사업자 선정과 금리를 대폭 낮춘 ‘나주 미래산단 재협약 동의안’이 나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서 나주시가 재정파탄 위기에 놓이게 됐다.

22일 나주시에 따르면 나주시의회는 8일간의 일정으로 제163차 임시회를 개최했지만 상임위를 통과한 미래산단 재협약 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도 못하고 21일 자정을 기해 자동 폐회했다.

나주시의회는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의원 5명이 21일 자정까지 의회 본회의장과 방청석 출입문을 쇠사슬로 봉쇄한 채 출입을 막고 농성을 벌여 본회의 개최가 무산됐었다.

이들은 “1차 사업 때 빚어진 비리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D시공사가 2차 사업 시공사로 재선정된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하며 “시공사만 바꾸면 동의안 처리에 응하겠다”고 배수진을 쳤었다.

반면 다수인 무소속의원 8명은 “오는 31일까지 안건처리를 못하면 2000억원에 대한 원금상환이 지연되고 19% 이자로 380억원을 나주시가 추가 배상해야 한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처리에 응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시의회는 이에 따라 22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미래산단 재협약 동의안 안건 표결처리 등을 위해 24일 오전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다.

양측이 본회의 개최에 합의한 것은 오는 31일까지 2000억원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다음달 1일자로 시금고에 압류가 진행되는 등 ‘지방자치단체 초유의 부도사태’가 현실화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민생과 관련된 시급한 897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과 19건의 조례안 승인 처리가 무산돼 시민고통으로 이어질 경우 의회에 대한 책임과 비난을 피해 갈 수 없다는데 있다.

임성훈 시장은 이날 호소문을 통해 “오는 31일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6월 1일자로 연리 19%의 이자 폭탄은 물론 나주시 금고에 압류가 집행되는 지방자치 초유의 ‘자치단체 부도사태’에 직면하게 된다”며 “부담을 줄인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미래산단 재협약 동의안의 골자는 나주시가 재공모를 통해 미래산단 우선협상대상자로 나주산단개발 컨소시엄㈜를 선정하고 금리를 기존 6.5%에서 4.098%, 비용 및 수수료는 3.75%에서 0.527%로 대폭 낮추고 나주시의 신용공여(채무보증) 비중도 100%에서 70% 낮춘 것이다.

/나주=손영철기자 ycson@

기자 노트

나주산단 대승적 차원에서 풀어야

손영철 중부취재본부 기자

미래산단 조성 의무부담 동의안이 나주시의회에 상정되지 못하면서 이달 말로 끝나는 차입금 연장 시한에 빨간불이 켜졌다.

만약 이달 안에 동의안의 의회 통과가 좌절되면 380억원의 이자 폭탄과 전국 지자체 중에서 처음으로 시 금고가 압류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나주시는 모라토리움이나 디폴트를 선언할 수밖에 없다.

최근 시는 미래산단의 계속 추진을 위해 개선안을 의회에 상정하고 의결해 주길 기다리고 있다. 개선안의 내용은 이달 말에 도래하는 미래산단 2000억원의 채무를 이행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자 재선정 등이다.

내용에는 금리 4.098%, 수수료 및 비용 3.75%, 나주시의 신용공여 70%(30%는 금융사와 시공사 분담), 중도상환 가능 등 기존에 비해 대폭 개선된 조건이 담겨 있다.

하지만 민주·민노당 시의원 5명이 2차 사업자로 선정된 D업체가 검찰에 기소된 상태여서 배제해 줄 것을 요구하며 본회의장을 봉쇄하고 농성에 들어가 임시회가 시한을 넘기게 됐다.

사업선정 과정을 보면 시에서 불합리한 규정을 적용한 부분이 있다. 이는 미래산단 조성 출발부터 무더기 기소와 함께 혈세 낭비가 벌어진 집행부의 밀실행정이 빚어낸 결과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우리에겐 잘잘못만 따질 시간이 없다. 6월 1일이면 연체가 아닌 어음이 돌아온다. 막지 못하면 곧바로 부도 처리되는 것이 어음이다. 지방자치 초유의 ‘자치단체 부도사태’만은 피해야 한다. 대승적 차원에서 시급한 민생과 관련된 추경예산안과 함께 ‘동의안’을 처리하고 매를 때려도 늦지 않다.

나주는 지금 그동안의 침체에서 벗어나 부흥의 길로 나설 대전환기를 맡고 있다. 대표적으로 혁신도시 건설이 그것이다. 우리는 두 번 다시 주어지지 않는 절호에 기회를 잘 살려야만 한다. 혁시도시 배후지에 건설되는 미래산단 조성도 그런 이점을 활용하자는 측면이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만 시 재정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주시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문제는 앞으로 시 집행부에서 얼마나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의회와 협력하며 추진하느냐에 달려있다.

나주시 한해 예산의 절반이 소요되는 대형 사업을 다시는 밀실행정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시는 그동안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미래산단 조성이 성공적으로 완공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다.

광양만권 SW연구소 본격 업무

광양만권 소프트웨어(SW)융합연구소가 22일 오후 송영무 순천대 총장, 이성웅 광양시장, 홍종희 전남테크노파크 원장, 김태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사진〉

순천대와 광양시, 전남테크노파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은 업무 협약을 통해 광양만권이 세계수준의 소프트웨어 융합산업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 개발과 연구사업 등을 협의하고 공동으로 추진한다.

순천대 송영무 총장은 “연구소를 중심으로 광양만권을 SW산업 선도지역으로 만들고 SW융합 및 SW인증의 메카로 떠오르게 할 것”이라며 “2015년까지 30억원 규모의 연구소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광양만권 SW융합연구소는 (재)광양만권 u-IT연구소의 지역IT 특화연구소 사업과 2차년도 지역SW융합사업을 인계받아 수행하고 있다. (재)광양만권 u-IT연구소는 지난 2006년 전 정보통신부에서 지역 IT 특화연구소 설립사업에 순천대와 광양시가 공동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5개년 간 사업을 수행해왔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나의 미래는 어디에… 2013 전남진로박람회가 22일 화순 하니움체육관에서 개최됐다. 목포, 광양, 여수 등지에서 온 학생들이 각 부스를 돌아보며 자신들의 진로를 알아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정원박람회 인기에 무안공항 ‘호황’

4월 1만4474명 이용 전월보다 160% 늘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막으로 지난달 무안공항 이용객이 160% 늘어나는 등 국내 공항 국제선 여객이 최대 실적을 거뒀다. 반면 지난해 여수세계박람회 개막으로 호황을 누렸던 여수공항은 KTX 개통으로 국내선 여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지난달 무안공항 국제 여객이 지난해 같은 달 5547명 대비, 160.9% 증가한 1만4474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국제 여객은 전년 동기 대비 579만명 대비 1.8% 증가한 589만명이었다. 이는 역대 4월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국내선 여객도 0.1% 늘어난 202만명을 수송,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으로 소폭 증가했다. 국내·국제 항공화물도 29만2000t으로 2.6% 늘었다.

이는 중국 청명절(4월 4일~7일)과 노동절(4월 29일~5월 1일) 연휴기간 중국 관광객이 증가했고, 순천국제정원박람회 효과가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또 무안~톈진, 무안~선양 등 2개 전세기 노선이 추가되는 등 무안·청주·대구 등 지방공항의 신규 중국 노선 신설이 이용객 증가로 이어졌다. 저비용항공사의 여객 분담률도 전년대비 1.9% 상승한 9.0%를 차지했다.

하지만 지난해 여수박람회에 맞춰 개통한 KTX로 승객이 분산된 것으로 보이는 여수 공항 이용객은 지난달 2만56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5363명에 비해 18.9% 감소했다. 김해와 울산공항도 KTX 개통으로 각각 5.7%, 9.8% 이용객이 감소했다.

전남도 이승옥 관광문화국장은 “올해 톈진, 선양 노선이 차가 돼 순천정원박람회를 찾는 중국 관광객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나주 우정정보센터 5개 마을과 자매결연

광주·전남 빛가람혁신도시로 가장 먼저 이전한 우정사업정보센터(센터장 노재민)가 지난 21일 나주혁신도시 신청사에서 나주시 5개 마을과 자매결연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우정사업정보센터 5개과는 산포면 화지리·매성리, 남평읍 방축리, 다도면 장암리, 공산면 봉곡리 등 5개 마을과 자매결연을 통해 지역에서 필요한 일손 돕기, 지역농산물 이용 및 판로개척 지원, 사회공헌사업 우선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센터 관계자는 “도시 출신 직원들도 마을과 연계 사업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는 등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나주=정칠헌기자 chjung@

논 생태계 보물창고 ‘둠벙’

전남도가 지난 2007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한 작은 웅덩이 둠벙이 생태계의 보물창고로 밝혀졌다.

농촌진흥청이 22일 발표한‘둠벙이 논 생태계 생물다양성 증진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결과에 따르면 둠벙이 있는 논이 없는 논에 비해 수서무척추동물이 2.7배 정도 많이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2010년부터 지난해에 걸쳐 담양, 충남 예산 등 전국 5개 지역별로 둠벙논 1개소와 둠벙없는 논 1개소를 선정해 비교·조사했다.

연구결과 둠벙논에서는 수서무척추동물이 총 59종, 5만274개체가 확인됐으며, 둠벙이 없는 논에서는 둠벙논보다 훨씬 적은 50종, 1만8662개체만 나왔다.

또 수서무척추동물 분류군의 대부분이 둠벙없는 논에 비해 둠벙논에서 높은 서식 밀도를 보였으며, 연체동물문, 환형동물문, 하루살이목, 잠자리목, 딱정벌레목 등은 종의 수도 둠벙논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둠벙은 1970~1980년대 이후 경지정리사업 과정에서 급격히 사라졌지만 전남도가 둠벙 조성에 나서 425개를 만들었고, 올 해도 335개의 둠벙을 조성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